



축구대표팀 훈련 공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3일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16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페루와 A매치를 치른다. /뉴스시스

전남, 전국카누선수권 18개 메달 수확

전남체고 박철웅 3관왕·홍정현 2관왕·전국체전 기대



전남체육회는 전남도청·전남체고·목포제일여고·삼호중 카누팀이 '2023년도 카누 스피리트 청소년대표 선발전 및 제41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체고 박철웅이 3관왕, 홍정현이 2관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전남체고 박철웅과 홍정현은 남자 고등부 k-2 500m에 출전해 1분 42초 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첫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k-2 200m에서도 3 금메달, 이진솔·이호준이 은메달, 박철웅은 이진솔·이호준·조유빈과 k-4 200m에 출전해 금메달, k-4 500m에서도 은메달, 홍정현은 k-1 200m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목포제일여고 김예원·김한설·이예진·이행은이 k-4 500m에 출전 은메달, 삼호중 김권호·김성현·변승진·신진성은 k-4 200m 금메달, k-4 500m 은메달, k-2 200m와 500m 김성현과 신진성이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김성현은 카누 스피리트 청소년대표 선발전 k-1 500m 전체 5위의 기록으로 청소년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전남체육회 김경민은 c-1 200m 은메달, c-1 500m와 1000m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김소현·김현희·임성화·탁수진이 k-4 200m 은메달, k-2 200m에 김소현·임성화가 k-2 500m 김현희·탁수진이 은메달, k-1 200m에 김소현이 출전해 43초 2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형우, 최다 타점·최초 1500타점 눈앞



지난 4월 2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 말 KIA 최형우가 김선민의 2루타를 본 뒤 달리고 있다.

최다 타점에 6개·최초 1500타점 7개 남겨
2008년부터 15시즌 연속 50타점 이상 기록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타자 최형우(40)가 KBO리그 통산 최다 타점 신기록과 최초 1500타점 달성을 눈앞에 뒀다.

개인 통산 1493타점을 기록 중인 최형우는 6타점을 더 올리면 이승엽이 보유하고 있는 KBO리그 통산 최다 타점 기록인 1498타점을 넘어선다.

아울러 타점 7개를 추가하면 KBO리그 최초로 통산 1500타점이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2002년 프로에 데뷔해 2008년 주전급 선수로 올라선 최형우는 2008년 4월 1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데뷔 첫 타점을 올렸다.

이후 2013년 500타점, 2017년 1000타점 돌파에 성공했고, 데뷔 18

번째 시즌에 1500타점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최형우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시즌 연속 50타점 이상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5시즌 연속 100타점을 수확해 이대호(전 롯데 자이언츠), 박병호(KT 위즈)와 함께 이 부문 최다 연속 기록을 갖고 있다.

최형우는 2011년 118타점, 2016년 144타점을 올려 타점왕에 등극했다. 특히 2016시즌 기록한 144타점은 2015년 박병호의 146타점에 이어 KBO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타점 2위에 해당한다.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52경기에서 32타점을 올리며 녹슬지 않은 타점 생산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챔스 준우승팀 이적설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올해의 선수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최다 득표로 선정
챔스 준우승 인터밀란, 황인범 영입 관심



한민국 황인범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2골을 넣은 뒤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27)이 그리스 프로축구리그의 올림피아코스에서 첫 시즌 만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그리스 리그 사무국은 13일(한국 시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올림피아코스 구단 역시 구단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올해의 선수로 황인범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황인범은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30.11% 득표율을 기록해 세드릭 바카부(19.02%)와 알렉산드로스 파스찰라키스(16.72%)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의 루빈 카잔에서 뛰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경기 출전이 금지되자 지난해 4월 한국에 돌아왔다.

황인범은 지난해 7월 FC서울을 떠나 올림피아코스에 합류한 뒤 40경기에 출전해 5골 4도움을 기록했다.

그리스 리그 활약 속에 황인범은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인터밀란(이탈리아)을 비롯해 나폴리(이탈리아), 페예노르트(네덜란드), 셀틱(스코틀랜드) 등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A매치 기간 귀국한 황인범은 오는 16일 페루와 20일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A매치를 치를 예정이다.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선수·코치진 성폭력예방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일과 9일 광주 영주체육관 국민생활관, 경기 부천시 양궁장에서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과 장애인 양궁 실업팀을 대상으로 스포츠 윤리, 성폭력,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페퍼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30여명이 7일 교육에 참가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부 7개팀 가운데 이 교육을 받은 구단은 페퍼가 처음이다.

9일에는 페퍼저축은행 장애인 양궁팀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윤리센터 감사 김언혜·박현애가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과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